

MLB 야구중계를 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막히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몇 시에 시작하지?” 이 질문이요. 특히 한국에서 보다 보니 시간대가 걸리고, 또 팀마다 일정이 섞여 있어서 한 번에 쓱 정리된 화면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주로 내가 응원하는 팀 경기만 꼭 집어서 시작 시간을 맞추는 편인데, 이게 생각보다 디테일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중계는 방송 편성 때문에 시작 전에 워밍업이 있고, 경기 시작은 딜레이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저녁”이 아니라, 확실히 경기 시작 시간부터 잡아두는 게 편합니다.

아래는 MLB 공식 일정 기준으로 “팀별 경기 시작 시간”을 확인하는 흐름을, 실제로 써먹는 방식으로 정리한 거예요. 중간중간 KST로 바꾸는 팁도 같이 넣을게요. 키워드도 자연스럽게 끼워 넣겠습니다. 야구중계, mlb중계, 야구중계사이트 찾는 분들이 바로 써볼 만한 내용으로요.

MLB 일정에서 시간을 먼저 보는 게 왜 편하냐면

MLB는 정규시즌이 162경기 체제예요. 시즌이 길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경기가 열리고 팀 일정이 계속 돌아갑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보통 MLB 일정의 표기가 ET(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시작 시간”을 제대로 잡아두면 이런 게 해결됩니다.

첫째, 야구중계사이트를 여러 개 옮겨 다닐 일이 줄어요. 어떤 사이트는 중계 재생 시점만 강조하고, 경기 시작 시간을 정확히 같이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공식 일정에서 먼저 확정하고 가면, 중계 페이지에서 시간을 다시 해석할 일이 줄어듭니다.

둘째, “오늘 내가 봐야 하는 경기”가 한눈에 정리돼요. MLB는 지구 단위, 와일드카드 흐름도 같이 보면서 보게 되는 데, 그 모든 걸 떠나서 일단 당장 경기 시간을 놓치지만 않으면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셋째, 우천 취소나 연기 같은 변수가 생겨도 대응이 빠릅니다. 일정이 바뀌면 시작 시간도 같이 바뀌니까요. 이걸 사이트마다 업데이트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 처음 기준은 공식 일정으로 잡는 게 마음이 편해요.

MLB 시즌 구조와 일정 화면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MLB는 정규시즌이 길고, 포스트시즌 진입 구조도 있어요. 다만 오늘 글의 핵심은 구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일정 화면에서 시작 시간을 뽑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왜 화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감 잡으려면 큰 틀은 알아두면 좋아요.



MLB는 2026 정규시즌이 2026년 3월 25일 수요일에 시작한다고 MLB가 발표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vs 뉴욕 양키스 경기로 출발한다는 내용도 공식 발표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MLB는 경기 일정과 순위 페이지가 업데이트된다고 안내돼 있고, 포스트시즌 구조도 리그 페이지에서 설명됩니다. 지구 우승팀 상위 2팀은 디비전시리즈로 직행하고, 나머지 4팀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는 흐름이죠. 이 정보가 왜 필요하나면, 가끔 일정만 보고 “이 팀은 왜 이렇게 가법게 보이지?” 같은 착각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는 순위와 맞물려서 중요도가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오늘은 시작 시간 확인에 집중할 거예요.

공식 일정 페이지를 볼 때 보통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경기 시작 시간, 매치업(누가 누구랑), 그리고 실제로 어디서 볼 수 있는지(Where to watch 같은 항목). 컨디션 좋게 야구중계 준비하려면 이 세 덩어리를 같이 잡아야 덜 헛갈립니다.

ET에서 KST로 바꾸는 현실적인 방법

한국에서 MLB 보려면 결국 시간 변환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몇 시간 차이냐”예요.

한국과 미국 동부는 보통 13시간 시차가 있어요. MLB 일정은 표기가 ET(미국 동부시간)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서, 한국(KST)으로 보려면 보통 ET에 13시간을 더해 보면 됩니다.

다만 시차는 “보통”이라고 했죠. 실제로 시즌 중 서머타임 적용 여부 같은 변수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최소한 경기 당일에 공식 일정 표기와 함께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편이에요. 특히 야구중계사이트에서 “한국시간 몇 시 방송”이라고 띄워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공식 변환을 그대로 반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은 공식 일정의 시간, 보조는 중계 페이지의 안내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 일정에서 어떤 경기가 ET 기준으로 오후 7시에 잡혀 있다면, 한국에서는 대략 다음 날 오전 8시 전후로 보게 되는 식이에요. 물론 정확한 분 단위까지 딱 맞추려면 해당 시즌의 실제 시차 적용 상태를 같이 봐야 하지만, “대략 몇 시쯤” 감 잡는 데는 보통 13시간 규칙이 잘 먹힙니다.

이 부분이 감으로만 끝나면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경기 시작 시간 확인은 공식 일정에서, 내 시청 타이밍은 중계 안내에서” 이렇게 이중 체크하는 편입니다. 야구중계사이트를 쓰더라도, 기준 시간을 외부로 두지 않으면 덜 흔들립니다.

팀별 경기 시작 시간을 뽑는 가장 빠른 흐름

MLB 일정은 날짜별로 쭉 보게 되는 구조라서, 처음부터 “내 팀만” 찾으려면 눈으로 필터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은근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먼저 내가 보고 싶은 팀을 정해요.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뉴욕 양키스처럼 특정 팀이죠. 그 다음에 일정 화면에서 해당 팀이 등장하는 경기들을 훑고, 그 경기들의 시작 시간을 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기 시작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경기 장소나 중계 방식이 같이 표시되어도, 저는 시작 시간부터 먼저 체크합니다. 그래야 뒤에서 시간이 틀리는 실수를 안 하더라도요.

그리고 KST 변환이 필요하니까, ET 기준 시작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바꾸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한 번만 합니다. 보통 시차 13시간을 더하는 방식으로 감을 잡고, 필요한 경우 중계 채널 안내와 대조해요. 특히 밤샘 시청을 하거나, 출근 전 짧게 보려는 날에는 “대략”이 아니라 “정확히”를 맞춰야 하니까요.

여기서 체감 팁 하나 더요. MLB 일정 화면은 업데이트가 되고, 시즌도 길다 보니 “오늘 경기”를 볼 때와 “미래 날짜”를 볼 때 화면 정보의 밀도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저는 당일 경기일수록 시간이 바뀔 수 있다고 [mlb중계](#) 생각하고, 시청 직전에도 한 번 확인합니다. 실시간 야구중계로 넘어가기 전에, 시작 시간이 그대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야구중계사이트를 고를 때, 시간 확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공식 일정만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계를 제공하는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야구중계사이트를 찾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재생만 되는 곳”을 찾기보다, 일정과 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최소한 이 조건을 확인합니다.

- 내가 확인하려는 경기가 공식 일정의 상대팀, 시작 시간과 일치하는지 본다
- Where to watch 같은 안내가 있는지 확인해서, 중계 경로를 시간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 우천 취소나 연기처럼 변수가 생겼을 때 일정 변경을 반영하는지 본다
- 여러 탭을 넘나들며 찾느라 시간을 잃지 않도록, 화면에서 시간 읽기가 쉬운지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mlb중계 선택이 훨씬 깔끔해져요. 야구중계사이트는 많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시작 시간에 맞춰서 들어지는가”가 승부거든요.

실제로 많이 하는 실수들, 그리고 피하는 법

MLB 일정 확인을 하면서 제가 자주 보게 되는 실수 패턴이 있어요. 본인도 한 번쯤 겪을 만한 것들이고, “왜 틀렸는지”가 명확해서 고치기 쉽습니다.

첫째, ET와 KST를 섞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 동부는 한국보다 13시간 빠르다”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날짜 경계에서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ET가 오후로 보여도 한국에서는 다음 날 아침일 수 있고, 그러면 “오늘 밤 경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변환할 때 날짜도 같이 생각합니다. 시간만 바꾸면 끝이 아니더라고요.

둘째, 경기 시작 시간은 확인했는데, 중계 시작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예요. 중계는 보통 경기 시작 전부터 워밍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메이저리그 중계](#) 어떤 날은 화면 구성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공식 일정의 시작 시간을 다시 한 번 근거로 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야구중계는 결국 시작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덜 흔들려요.

셋째, 일정은 봤는데 업데이트를 안 보는 경우입니다. MLB는 일정과 순위 페이지가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경기 시간도 변동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날씨 이슈가 있는 날은 더더욱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야구중계를 틀기 직전, 시작 시간 한 번만 다시 보는 습관을 들였어요. 이게 습관이 되면 시간도 덜 낭비합니다.

“오늘 당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해보기

MLB 일정에서 팀별 경기 시작 시간 확인을 머릿속 시나리오로 만들어두면, 다음부터는 훨씬 빨라져요. 저는 아래처럼 생각합니다.

내 팀을 정하고, 공식 일정 화면에서 그 팀이 나오는 경기들을 보고, ET 시작 시간을 읽은 다음 KST로 보정합니다. 그 다음 중계로 넘어갈 때는 야구중계사이트 화면에서 “이 경기 맞나”를 한 번만 확인하고 들어가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자동으로 계산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MLB는 2026 정규시즌이 3월 말에 시작하는 구조라서 시즌 초에는 특히 “개막 이후 며칠이 언제인지” 같은 감각을 놓치기 쉬워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 25일 개막 경기처럼 특정 날짜가 공식 발표로 잡혀 있으면, 그 기준을 잡고 달력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일정 확인이 훨씬 편해져요.

마무리 대신, 본인 스타일에 맞게 고정하기

야구중계는 결국 반복이에요. 매일 보는 사람도 있고, 주말에만 몰아 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루틴”을 정하는 겁니다. 어떤 루틴이 좋냐는 정답이 없어요. 대신 기준만 단단히 가져가야 합니다.

저는 기준을 공식 일정의 시작 시간으로 두고, 변환과 중계 안내는 그걸 보조로 삼는 방식이 가장 덜 헷갈렸어요. 특히 KST 변환은 보통 13시간 시차를 활용하되, 경기 당일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쪽이 안전하더라고요. 이렇게만 해도 mlb중계 볼 때 “시간 놓침”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원하면 다음 단계로, 당신이 자주 보는 팀이랑 보려는 시간대(예: 평일 새벽, 주말 저녁)를 말해줘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 “어떤 날짜 범위를 먼저 보고, 어떻게 시작 시간을 고정해두면 좋은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줄게요. 야구 중계사이트 고를 때 같이 적용할 수 있겠어요.